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는 콘텐츠산업

창작인의 공정한 활동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가 제·개정되고,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가 마련되는 등 정책지원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콘텐츠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지 인터뷰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우리 사회가 A라면 그것을 해석한 A-결과물이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반영했든 가공해서 해석했든 이 결과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콘텐츠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창작인들에게 공정과 상생의 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도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배기형** KBS 월드사업부 프로듀서

콘텐츠 창작인들의 상생을 위해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은 '기회'다. 이미 강자들이 자리 잡은 산업에 뛰어들고, 없던 시장을 개척하려면 도전자들에게 남다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창작인들이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도전할 때 콘텐츠산업이 발전하고, 이들이 또 다른 기회를 남에게 제공하면서 상생이 이뤄진다고 본다. **김태은** 맘스라디오 대표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인맥, 추천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선수를 뽑기 때문이란 얘기가 있다. 어떤 선수에게나 공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 발탁될 수 있다. 공평한 기회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윤재 헤드플레이 콘텐츠사업본부장

공정상생은 콘텐츠산업의 지속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여러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야 하는데 일부 기업 및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 도전하는 창작인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중재가 필요하다. **김신우** 모던보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결국 모든 것은 리소스(자원)에 달려있다. 리소스는 인력과 돈인데, 인력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공정상생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종인 스케치온 대표

연구개발(R&D) 지원이 단순히 기술 개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사와의 협력과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다음 단계로 이어져 상생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물의 퀄리티도 높아지게 된다.
권도균 에이펀인터렉티브 대표

CG 콘텐츠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콘텐츠 성격에 맞춘 정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CG 응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책도 다양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송재원 디지털아이디어 CTO

공정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제도 및 시스템이라는 틀도 필요하지만 창작인, 소비자 등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창작인은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주고자 하는 본분을 잊지 않고 나와 내가 속한 곳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 상생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김충재**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공예 작가